山海關奪取令으로 學良軍東進을開始

◇孫軍도天津에集結中 抵死總攻擊을密電

【奉天二十五日發電通】 산해관사건에대하야 일본의 국제적교섭태도에 응치안는 중국은 석하(石河)이서에 진지를구축하고 어데까지던지 도전적태도로 나오고잇다 二十四일 북평군사위원회분회에서는 제二군장하주국(何柱國)에대하야 구정원조인 二十六일을기하야 란하(灤河)이동의 전군을 전진식히어 산해관을 탈취코저 죽엄으로써 총공격을하려고 밀전을발하얏다

그一방 산서(山西)남부에잇는 손전영(孫殿英)군을 북상식히어 이미 一부대는 천진방면에 집결을종료하고 차츰차츰 적봉(赤峯)방면에 진입을준비중이다

關東軍爆擊으로 通遼攻擊中止

【通遼二十五日發電通】 二十二、三、四일의三일간에공한 일본○○과의 개로(開魯)폭격에 동문(鄧文)풍점해(馮占海)등협하의용군의 사무전부를 완전히 폭파하고해국신(解國臣)최려장(崔旅長)의 사분소만을 파괴치못하얏는데 일본군의용맹 과감한맹격에의 용군도과석을 빼아서고 중요공격의 기도를방괴한것갓다

그런데 탕옥린(湯玉麟)은 화랑에완전히 매수되어 二十四일 다음과가티 날조전보를 중외에발표하얏다

일본의 비행기는 최근성히 개로방면을 폭격하야 군대를 목표로하지안코 량민에게 폭탄을투하하야 하부로 ○○을하고잇다 우리는 이러한 비인도적행위를 공표하야 중외의 청돈에 호소한다 하야 자신을 폭로하고잇다

國民府員梁世奉等 重大陰謀를計劃

新賓縣中心○○團體 關東軍討伐을決意

【봉천二十五일발전통】 신빈모를 계획하는 형세가잇다 (新賓)을 중심으로도 하고잇는 재등화도성지도○대 (通化都 는 조선인단체국민부 (國民府城志道○隊)는 단연이것을토벌 府) 부사령양세봉 (梁世奉)은 하기로 결하고 이미지난二十일 최근 부하약三백명을 규합하야 이목○대(二木○隊)를출동시키 북천자(北甸子)에서 조선○○ 엇다 ○외 수뇌자회의를열고 중대음

朝鮮○○黨 張信國公判

【신의주】 조선○○당(朝鮮○○黨)중앙집행위원으로 칭소년에게 조선○○사상을 주입하야

全朝鮮各刑務所 在監者一萬八千

일본인은 전부 五백十九명 女子四人도五百名

한만흔 철창의 쇄색도 커므 런다 유력으로 이해가 다하는 이 금옥밤! 기픈철창에서 유력새 해를맛는이 얼마가 되는가?

전조선 二十六개형무소의 작년十二월말일 현재를보면 죄의 형을밧고 복역하는사람이 조선 인 一만五천八十인 일본인四백 二十四인 외국인一백七十인 모다 一만五천六백 七十四인이엇다 한다

그리고 각급하게도 장차죄의 심판을 과대리는 미결중의 형사피고는 조선인 二천四백七十一인 일본인八十九인 외국인十五인 모다 二천五백七十五인이 엇다

그리고 또 로역장에류치되어 잇는사람은 조선인 九인 외국인 一인 일본인六인 외국 다 六백十五인 이엇다

그리하야 전조선 형무소안에 수용되어잇는 총수는 조선인一만八천一백四十九인 일본인 五백十九인 외국인 一백九十六인 모다 一만八천八백 六十四인이 엇다

이를 남녀별로보면 조선인은 남자가 一만七천六백 四十四인 녀자가 五백五인 일본인은남자 가 五백一인 녀자가 十八인 외국인은 남자가 一백九十인 녀자가 六인이엇다

天眞한乳兒도! 十三名이獄사리

三백七十六인 미결수 七十九인 모다 四백五十五명이나 됨으로 그중에는 어린자식을 낫차마 자로 형무소에 입감이되어 어린자식을 다리고잇는부녀자 또는아히 를배인채 형무소에 입감되어 그 별항과가티 전조선 형무소안에 수용되어잇는 긔결, 미결수 안에서 아히를나서 그대로다리 중에는 조선인의녀자가 긔결수 고 잇는부녀자들도 적지아니하

元山署活動 廿餘名檢擧

묘령의녀성도 몃명이잡혀 咸北某事件關聯?

【원산지국전화】 원산경찰서에서는 二십三일밤부터 돌연대 활동을 개시하야 二십五일아 츰까지 二십여명의 청년을 검거 하고 지금도 계속활동중이며 그 중에는 묘령녀성도 잇다한다 사건의내용은 절대비밀에 부 침으로 자세히알수업스나 탐문 한바에의하면 함북방면에서 모 모의수모등이 주대사명을 씌고 원산에 잠입하야 유력청초를 괴 회로 모종의사건을 계획중미연 에 발각검거된모양이라는데 그 중七명은 작二十五일 오후四시 五십분렬차로 함북방면으로 호 송하얏다한다

(梁本)방판사 배석 곡천(谷川)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엇섯 는데 어제 그범죄내용을 듯건대 장신국은 대정十五년七월 경성에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으로 一년간징역을지고 출옥후 만주로 건너가 소화二년七월 정의부(正義府)에가입하야신빈현왕청문(新賓縣旺淸門)화흥학교 (化興學校)에서 교편을잡고잇다가 익四년一월에는 동교교장이 되엇스며 그후조선○○당에 가맹하야 익五년八월왕청문에서 개최된 조선○○당 대회에 참석하야 중앙집행위원에 피선된후 동六년十二월까지 동당교양부원으로서 문화、로동、투쟁교육에 종사하얏스며 익七년九월二十일 조선○○군에 가입하야 훈련소장대리의 사무를보앗섯다한다

검사는 징역五년을 구형하얏는바 판결은 오는三十일언도하리라한다

오는 ▲本籍平南大同郡金祭面上地里 住所奉天省新賓縣河南街張信國(二三) 又名張一、張一漢 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 사건의 공판은 지난二十二일 신의주지방법원형사 법정에서 국지(菊地)재판장주심 도변(渡邊)검사

閔主教葬儀에 六千名會葬

중로엔 엄숙히 항렬할터 今日天主教서擧行

천주교(天主教)의 민주교 장의는 명二十六일 오전十시로부터 명치정 천주교당에서 집행하게되엇는데 장의참렬자는 때사교가 흡사히신과 가티존경되고잇든 외국에 무려六천여명에 달하리라한다

이六천여명에 호위되어 의식이 종료한뒤에는 령구를 압세우고 대행렬을하야 명치정으로부터 조선은행압흘 지나 경성역전에서 잠간쉬이고 련병정에서 원정(元町)천주교당에서 고별식을 거행하고 외인묘지에 매장할모양이라한다

道巡査試驗

오는 二월十八일 오전九시부터 경긔도순사교습소에서 조선인순사 채용시험을 시행한다는바 금번에는 특별히 백명을 모집한다하며 자격은 보통학교 졸업이상의 二十세이상 三十五세까지라 한다

그가튼 아동들은 아모죄도업시 세상에태여나― 그야말로부모의죄로 말미암아 억울한철창생활을 하는것이라 한다

法廷

▲覆審法院
李壽伯外二人 詐欺(公判)
金河璟 關稅法違反(公判)
杉山要外五人 商賄(公判)
水田光義 詐欺(言渡)
黃榮老外二人 私文書僞造(言渡)
趙信女外一人 治安維持法違反
金昇喆外一人 詐欺(言渡)
▲地方法院
朴卜寶外一人 窃盜强盜傷人(公判)
朴商弼 住居侵入恐喝未遂
法監宗(公判)
李福準 殺人(言渡)
姜敬順 强盜傷人(言渡)

八十餘名起訴以後 又復百廿餘名檢擧

不穩文삐라等多數押收 道場을取調室로代用嚴調

城津農組事件擴大

【성진】 함북성진경찰서(咸北城津警察署)에서는 제일차로 성진농민조합 (城津農民組合)원二백여명을 검거하야 작년四월부터 五개월간 엄중히취조를마추고 가부리규송(李奎宋)김재수(金在水)외八十명은 지난九월에 칭진검사국에 송치하야 목하칭진형무소에 구금하고 예심중에이는중인데 제一차송국후에도 계속하야 미체포자의검거를 개시하야 지난년말경게써로부터 一월十일까지 최영배(崔永培)김금산(金今山)허응춘(許應春)외 백二十여명을 검거하고 두장을취조실로 평청고등계주임(坪井高等係主任)이하 四명의계원이 엄중취조중인바 취조를말하 제一차이외 신사실이발견될듯하다하며 증거물로 불온문서삐라등을 만히압수하얏는데 오는二월말까지 취조를마치고 제二회송국을하게되리라고한다

延人員萬餘名警官이 晝夜八日間東奔西走

밤낫 여드레동안을 엿만먹고 살어난 逮捕되기까지의死刑囚沈宗星

일심에사형바든 살인강도로 재판소류치장을 탈출한심종성을 체포함에는 연인원 만명의 경관이 동원되엇다한다

그를체포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고심이만핫스나 그는도주 할때와달나 방한모(防寒帽)에 버선과 집신을 신엇고 덧조고리까지 입엇는데 범인의 자백에는 대동군 남형제산면(南兄弟山面)어느때은 부부가 사는 집에서어더입엇다고 하나 이것은 그의 친족에게서 어더입은혐의가농후하야 게속취조중이라한다

그리고범인은 二、三일후 취조를마친후 곳평양지방법원검사국으로 경유 다시 형무소에 수용하리라한다

범인심종성은 어떠케달아낫고 그리고八일동안 어떠케숨어다녓나、그고심은 얼마나하엿나 이 수수섹기는 류치장속에서 담배를 피워가며 벌덕누은채 취조에응한 범인의입으로부터 다음과가티 풀녀나와 다

十六일 오후령시반 복심공관에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다시 재판장류치장속에 드러간 심종성의 귀에들닌 이상한 음향(音響)―분명코 류치장문을삼그는 소리엇는데 그소리는과거七년간 감옥에서 듯든 ―그리고 현재 一년남아드러오든 감옥문채우는 소리건만 그채우는 소리가 달리들인다

여기 이상한 생각이생긴 그는문틈으로 박글엿본결과 자가를직힐간수가 조고리를 버서노코 변소에 간것을 알자 문을 내미려보니 문은힘업시 열녀나왓다―그는 덥비지안코 침착하게류치장을 나와 사면을 살핀후 세어논간수의 칼을 호신용으로 속에품고 류치장을 버서나와 재판소 남쪽문을 빠저 동정(東町)을통과 천도이면을통하야 一로 평남가도(平南街道)로나섯다

◇

그는 곳 대동군 남형제산면(大同郡南兄弟山面)으로 드러서 어느산속으로드러가 비로소 자가놈을 구속하는 포승을 애써서 풀어버리고 쇠수갑을 돌에처서 깨트렷다 한다

이때야 평양에서는 경관의 비상소집이되고 수사망을 펴처노핫스나 이미二十리박 산속에잇는 심종성을 부내에서 경관과헌병、군대까지―천명―하기이 一만명이라도 그를발견할 재주가업슬것이엇다

범인은 산속에서 그밤을 밝히는데 밤새도록 그산을 돌고 돌아 몸이 얼지안케 애쓰다가 날이밝으매 대동군금제면장현리(金祭面長峴里)를내려와 길거리에 노혀잇는 엿장사의 엿二원어치나 되는것을 홈쳐로 훔처 배를채우면서 강서군대면 제촌리 (江西郡台面○村里)로드러서 역시밤새도록 거러서 동사(凍死)를면하고 十八일을 마즛다고 한다

◇

十八일아츰 다시거러 평원군 칭산면 칭룡리(平原郡靑山面靑龍里)로 드러가서 그날밤은 어느집방아간속에 드러가자고 十九일 원충산(圓忠山)을 넘어서 『소구지』라는 촌 한 한경(韓學京)의집을 차자갓다고 한다

한학경의 세질럽중식 (廉仲植)은 현재 모、사상사건 피고로서 평양형무소에잇스면서 예심중에잇는터로 범인은 옥중에서 그의외삼촌 된다는말을 드러든관게로 자기도 렴중식과 한사건으로 잡히엇다가 최근출옥해노라고 한학경을 속혀 그의집에서 하로를 묵으면서 홈처가진엿(飴)만먹고 살 든 그는 十六일아츰밥이후 비로소 그집에서 밥을먹고 뜻뜻한 방속에서 이불을덥고 잣다고한다

◇

廿一일은 아침밥을먹고 한학경의 집을떠나 그밤은어느 산속에 여(旅舍)둔 빈집에서자고 廿二일에는 밧가운데 뭇혀진(?)언 두막(?)에불을노코 그여페서밤새우고 廿三일에는 룡호리(龍湖里)로가서 아츰八시경 자기의 외三촌되는 안유겸(安允謙)의집에드러가 밥을 칭하엿다한다 마츰아침밥이 끗헤 수쌀을 퍼먹고뒤어나왓다고한다

그런데 이집은 원태령원서근 무림(林)순사가 직히고잇든터로 八시경마침 림순사가 조반을먹으려 자기집에갓든 틈에 범인이 드러갓든것인데 림순 사의 처가 안윤겸의 처에게서 이말을 듯고 곳남편에게 알니어 령원서원 총출동으로 범인을추격 필경은 체포한것이라 한다

◇ 설비음 다투며 ―세배다니는 어린이

魔都의香불 【五十五】

方仁根 作
李靑田 畵

절벽 (絶壁) (六)

애희는 새벽부터 이불속에서 눈을뜬채 그수업시 우는 닭소리를 다 들엇다。먼촌에서 갓가운동래에서 서로주고밧으며 연달어우는 닭소리를 드를때 시골정취가 떠오르며 그촌의한가로운것이 눈에 선하엿다。

애희는 가보고도십고 그런시골에서 살엇스면하는 생각도 하엿다。

숙경도 웬일인지 일즉깨엿나보다 뒤미처 깨인듯하엿다。애희는 달의얼굴을볼것이 무시실혓다。

하녀가 올러와서『신넨 오메데도고사이마쓰』하는 새해인사를 드리고 식전목욕을하라고하엿다。

『안녕히주무셧습니까』하는창피스러운 달의목소리가 엽방에서낫다。

『편히 쉬셧서요 피차우섯지요』하고 숙경은 달이보히지도 안는데 아양을 떨며말하엿다。

『필요 판찬습니다 참 목욕을하러가시지요 나도지금 간단데』

목욕탕으로 가는길에 애희는 달의얼굴을보게되엿다。퍽 미안해하고 거북해 할줄알엇는데정반대로 달은 싱글싱글하며 자연스럽게 대하는데 애희는 한층 불쾌하엿다。

……낫작도 뻔뻔하지! 얼굴에쇠가죽을 뒤집어쓴거야……

애희는 이러케 속으로 생각하니 달의 얼굴이 유심히 커다보엿다。

목욕을하고나오니 해도동쪽산에서 떠올러와 눈차힌 대지를 찬란하게 비최엿다。으스스치웟든 몸이 뜨거운물에 익어서 혹근혹근하여 마음새지 상쾌한데다가 새해첫날 첫아침에 맨처음 소사오르는 태양을 바라볼새 애희는 한것줄거웁고그해에게 뒤음하고십흔 생각도이러낫다。

『오──거룩한 해여! 신비한 태양이여! 장엄한 그빛이여!』

이러케애희는 속으로 부르짓엇다。

『지금 이새욧한몸이신선한마음이 금년일년동안 계속하게하여주소서』

하는것을 애희는 속으로괴도하엿다。참맑목욕하고난 자긔몸은 무한히 정결한것갓고 흰눈으로 장식한 고요한시골 산천에새해 첫아츰 해人빛이 비최인것을보는 자긔마음도 퍽신성한것가탓다。그러한마음과몸이 일생동아계속한다면 얼마나행복일가 하는것이 애희는웬일인지 다시금다시금 생각키엿다。

여관밤에 드러오니 하녀가조반상을 가져왓는데 명절음식으로 핑장하게차렷다。

그중에는「오소니」(떡국)도잇고「미링」(술)도잇섯다。하녀는 그술을 붉은칠을한 밝다한나무접시가 큰것부터 차례차례적은것까지 다섯개가 첩노인것을노코 하나씩술을부어서 달에게주고 숙경에게도주고 애희에게도 주엇다。

애희는 실타고 눈을찡그렷다 숙경은 조고만잔에부은것을 마시고

『이것은 일본사람이 설날먹는술인데 여간 달콤하고 맛이는게 아니란다 취하지도 안는거야』하고 애희에게 권하엿다。

그러나 애희는 강경하게 실타고하엿다。이번에는 달이 또권하엿다。그러나 애희는 못드른최하엿다。하녀도 보다 보다못해 일본풍속에는 설날에는 녀자도 이런술을 쑥 먹는것이니 잡수라고 말하엿다。애희는 대답도 아니하고 나른 음식만 먹엇다。

『참 너도 고집이 어지간하구나 그러케 여러사람이 권하는데 한목욕을 입에 대면 어떠타말이냐 너 예수쟁이가 되어서그러니』

그러나 애희는 눈섭하나 까닥아니하고 서리맞처럼 싸늘한태도를 보힐뿐이엿다。

달은 그 술을 다먹고나서 나믄음식은 먹는동 마는동 젓가로 뜻적거리기만 하엿다。달은 목욕하고 난데다가 식전술을 먹어 홍인종처럼 얼굴이 붉으다。애희는 동물원에서 본 이상이 불기짝이 문득 생각나고 달의 얼굴이 그것과 갓다는 거을 생각할때 입속에서 우숨이게 거품처럼 그르르 나오려는것을 참을수가 업섯다。

『참 오늘은 아침먹고 친정에 갓다오마 자동차타고갓다가 저녁때면 돌아올터이다』하고 숙은 애희에게말하고

『그동안 애희를 잘마텃다주세요 우리집 귀중한딸인데 호호』하고 달에게 말하고는 시 애희에게

『너 심심하면 커리선생님하고 온천거리 구경이나하렴』고말하엿다。애희는 가슴이 미켜 나려안는것가탓다。

玲瓏·鮮銳한眼!!

그것은近代人의生命이다

網膜을刺戟하는强烈한光線과 숨막히는塵埃、소리도업시襲來하는病菌의脅威—激甚한生活戰의前線에서奮鬪에疲困한눈에安息과營養을與하라。그것은近代人의用意다、常識이다、「世界의眼病國日本」의不名譽로부터解放되기爲하야于先眼藥의選擇을勿誤하라

現代眼科藥의最高標準을갖는것

로-도안약은本邦眼科醫界의權威、井上獨國醫學博士가國民眼科衛生의立場에서治病上及健眼上、가장有效하다는優秀한處方을藥學博士中尾方三先生指導下에嚴製한것이니我國醫學、藥學의粹를모아現代眼科藥의最高標準을갖는것입니다

家庭藥의使命—効力第一

손쉽게使用하야眼疾을趁即곳친다는것은家庭藥인眼藥의第一使命입니다　로-도안약은優秀한收斂作用、防腐、殺菌作用、消炎作用、鎭痛作用等、무릇眼疾의治療에必要한諸作用을完全히具備하고從하야　何等他藥液으로눈을씻을手苦를덜고 그러고도超스피-드的藥效를가진것입니다

눈을刺戟치안음(안쓰리고안아픈)

로-도안약은奏效迅速할뿐아니라點眼하야눈에不快한刺戟업고(안쓰리고안아프고)點眼後참말「눈이씻은듯한快感」을늣기는것은그자랑할만한特色의하나이니　이것은眼疾治療上은勿論、스포-츠의前後或은讀書、記帳、裁縫等細密한일에從事할때에使用하야最良한效果를보십니다

最大의信賴—日本一의販賣高

로-도안약은現에그販賣高에잇서斷然日本一인榮譽를保有하고잇습니다。이顯著한事實은로-도안약이近代人의要求에完全히合致하야社會最大의信賴를受하고잇슴을가장雄辯으로말하는것입니다

効力第一 로-도안약

視力保健運動의第一線에선

世界的眼科藥—井上獨國博士處方

適應症

結膜炎·結膜充血
疲勞眼·學校眼炎
角膜炎·眼瞼緣炎
角膜翳·도라호무
麥粒腫·淚囊炎等

俗稱 充血된눈、몰림눈血眼、짓무른눈、눈곱센눈、雪盲、凝眼、흐린눈、삼눈、쌀린눈、다래끼、濁한눈、부은눈、마른눈等

生産合理化의結果

藥價低廉

大瓶	五十錢
中瓶	三十錢
小瓶	二十錢
小兒用	二十錢

小兒用로-도안약에就하야

小兒用로-도안약은十五歲以下의小兒、乳兒의眼疾治療及豫防을使命으로하고　處方된것인데안쓰리고、안아프고아모리어린에기네에게도使하게安心使用할수잇습니다。

本舖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山田安民藥房

中尾藥學博士指導

規模의宏大·設備의完全·東洋第一의稱잇는로-도안약工場全景

雅樂創定 五百年을 際하야

世宗大王의 聖德을 사모하며 【一】

李 允 宰

朝鮮文化史를 뒤지어볼 때에 우리는 매양 고맙다는 생각을 말지 않는다. 江西三墓의 壁畫, 石窟庵의 四天王像, 海印寺의 大藏經板, 新羅의 瞻星臺, 高麗의 鑄字, 世宗大王의 訓民正音, 李忠武公의 龜船, 이와 같은 수없이 끼친 功績을 보고 우리 先祖들의 創造的 努力이 얼마나 컸었음에 우리는 스스로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 없게된다. 오늘은 世宗大王께서 雅樂을 創定하신지 五百年에 當하는 날이므로 우리는 이로써 世宗大王의 聖德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할 機會를 얻게되다.

나라에서 雅樂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世宗實錄에 (癸丑)十五年春正月乙亥朔 上率王世子及文武群臣, 行望闕禮……上御勤政殿, 設會禮宴如儀, 始用雅樂 이라 함을 보아 알 것이다. 世宗 十五年 癸丑은 곧 西曆 一四三三年이니 今年에서 꼭 五百年前이며 乙亥朔은 그 해의 正月 초하로날의 日辰이 乙亥인 것이다. 이 記錄을 보아 世宗大王께서 正朝에 景福宮안 勤政殿에서 群臣의 賀禮를 받으시고 新年宴會를 여시어 이날로써 雅樂을 처음으로 쓰시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朝會宴饗의 때와 宗廟享祭의 때에 다 雅樂을 썼으며 國家에서 이를 가장 神聖하게 保存하야 오늘까지에 이른것이다.

이제 雅樂의 制作에 對하야 歷史的으로 대강 상고하여 보자. 朝鮮의 樂은 본래 雅樂, 唐樂, 俗樂의 三種이 있었다. 俗樂은 本國語로 쓰는 本國樂이요 唐樂은 支那로부터 傳來하야 多少 改良을 加한 것이요 雅樂은 古樂의 一種으로 高麗初부터 郊社宗廟에 쓰는 것이었다. 高麗 睿宗때 (西紀一一一四年)에 宋 徽宗이 大晟樂을 보내매 鍾, 磬, 琴, 瑟, 笙, 竽, 簫, 管等 樂器가 그때에 傳來하였으나 恭愍王때 (西紀 一三六〇年)에 이르러 紅巾賊亂에 樂器가 모두 散失되고 오직 鍾, 磬 二器만 어느 樂工이 池中에 던져 붕어져우 保存하였음뿐이려니 明의 太祖와 太宗이 다시 새 樂器를 보내어 그것을 쓰게되었다. 그러나 當時의 雅樂이란 대개 宋, 明의 것이었다.

이러케 李朝初에 이르러 오히려 明樂을 그대로 썼으며 聲音이 律에 맞지아니하야 祭樂에 八音이 갖후지 못하므로 磬은 瓦磬을 쓰고 鐘도 雜懸하야 그 數가 具備하지 못하드니 世宗 七年(一四二五年) 가을에 秬黍가 海州에서 나고 磬石이 南陽에서 나매 世宗께서 위낙 樂理에 精通하시므로 이때 慨然히 革古更新의 뜻을 두사 當時 音樂家로 有名한 蘭溪 朴堧을 命하야 樂律을 다스리라하시었다.

朴堧이 海州의 秬黍를 取하야 그 形대로 蠟을 녹여 一粒을 一分으로, 十粒을 一寸으로 하야 九寸으로써 黃鍾의 長을 정하니 三分損益에 十二律이 되었다. 또 編磬 二架를 지어 올리는 世宗께서 試奏하시고 『中國의 磬은 모지 律에 맞지 아니하드니 이제 新磬이야 말로 과연 正聲을 얻었다 하겠도다. 그런데 소리가 저러틋 淸美하거늘 어찌하야 夷則 一枚가 좀 틀리고』하시니 朴堧이 자세히 살펴보고 『限墨이 아직 남아 있어 다 닦이지 아니하야 그러케 되나봅니다』하고 곧 墨痕을 다 지우니 소리가 잘 맞앗다 한다. 世宗께서 音理에 밝으심이 매우 이러하였다. (續)

萬國주일공과 (一月二十九日)

분재…위대한 의사 예수 (누가복음四장卅一—五장卅절)

요절…「더가 과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당하엿다」 (이사야五十三장四절상반)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신의 권능을 얻어 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전파되엇다 「예수」께서 「가비나움」으로 가서서 더러운 귀신들닌자를 꾸짖어 그 사귀를 쫓차내여 주심으로 「예수」의 명성이 더욱 나타낫다 하로는 베드로의 집을 심방하사 그의장모가 열병으로 심히 고통함을 고처주시고 (「누가」는 의사이엇음으로 이에 대하야 『했나』말노 자세히 설명하엿슴) 또 그날 저녁에도 다려오는 여러병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처주셧다 그래서 그곳 백성들이 떠나시지 말고 오래 거기계시기를 원하엿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갈닐니』각처로 가서 각종 병자들을 고처주실 때에 비록 문둥이와갈은 더럽고흉한 사람을 보실 때에라도 더럽다 안이하시고 곳 그 병자를 어루만지시며 고처주셧다 그때브터 「예수」의 풍문은 더욱 퍼저 수다한 무리가 모혀 오는고로 「예수」는 긔도할 틈을 얻기 위하야 광야로 가셧엇다 한번은 무리가 너무 복잡히 모혀듬으로 문앞이라도 용신할 틈이 없이되엿다 마츰 반신불수병자하나를 그의 친구 네사람이 떠미고 와서 갓가히 드려갈 틈을 찾을수가 없엇으나 엇더헌지 「예수」께 가기만하면 고칠줄 믿고 필경에는 그 집웅우헤 올나가 집웅을 뚫고 네귀에 줄을 매여 그 병자를 「예수」압에 달아나렷다 「예수」—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의 근원인 죄부터 몬저 용서하여주시고 따라서 그 병까지 고쳐주셧다

「예수」께서 이러케육신의 병을 고쳐주신것은 모든 사람으로 신령한 능력을 믿게함이다 그리하야 반신불수 병자의 죄를 몬저 용서하여주신것이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병은 죄인대 이 병은 사람마다 잇는것이다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오직 위대한 의사 「예수」의게로 찾어가는것이다

가정

仙化할處女를 救援한雄鷄

◇武成山에세워진忠鷄碑의傳說 (2)

【入賞】申 弼 鉉

마침내 그처녀는 동민들과 함께 지네스골로가서 자긔몸을 바쳐지안을수업게 되엇습니다 혹은 자식을 달라는사람 혹은 부자되게 해달라는사람 혹은 병이낫게해달나는사람……모든사람들은 각각자긔의 긔도를 드린다음 그처녀만 남겨두고 다돌아오고말앗습니다 처녀는 집흔산골에 혼자남아 죽기만가다리고잇엇습니다 하마나 무슨동정이 잇나하고 사방을 두루살펴볼때에 지네스골속에서 이상한소리가 나며 푸른안개가하늘에 가득차고 웅울한긔운이 산골을덥드니 별안간 산악이 묺어지는 소리가나자 처녀는 그만 정신을 일엇습니다.

얼마뒤에 동민들은 처녀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지네스골 앞에로 왓습니다 그러나동리 사람들은 전에못본 이상한일을 보앗습니다 그것은 지네굴여페 길이가 한발이나되고 넓이는 뮤쌱만한 크고 검붉은무서운 지네한마리가 죽어 업더저잇고 처녀의누어잇는겨테는 평시에그처녀가 늘 기르든숫닭이 나래를 흔들면서 자긔의독긔가 못들어 오도록 아고잇는것이엇습니다.

그것을본 동민들은 비로소과거오랜동안 년년마다한번씩처녀로제사지나야만 면할수잇는 그화가 다 이 지네의화인을알고 이제부터는아무일업시 지나리라고미덧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지네를 죽인것은 다만처녀가 오래기르든 숫닭의은혜라하여 한쪽으로는 숫닭을잡아먹지 안고 한쪽으로는 혼돈해업허저잇는처녀를 다시살려 깃븐마음에 노래를부르며 동리로 돌아왓습니다

몃해뒤그동리와그처녀에게은혜가기픈그닭이 세상을떠낫습니다 처녀는무론 온동리사람들이 다슬픈마음을 금하지 못하고닭의시체를 조흔관속에너허 지네스골 첫에다 고이 묻은후에그닭의은혜를 영원히긔념키 위하여 큰돌을쌔가 그무덤압헤세우고 충계의무덤 (忠鷄之墓)이라고 새겻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곳을 지나가는사람마다 이 옛날이야기를하며 닭의공로를 생각한답니다 (끗)

외롤아이일수록 외따로 재울것

어른과 넘우 접촉이 만흐면 조숙할폐해가 만타

우리조선에서는 어릴때에나 어른에게 입을마추는것으로 알고잇섯습니다마는 구미각국에서는 아들과 딸이 크도록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에게 입마추는것을 一종의

＝사랑＝ 의표현으로여기어배우례사로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우리조선에도 이습관이 차차늘어가고 잇습니다 그런데 입 마추는 것뿐 아니라 안어주는것이라든지 어루만저 주는것이라든지 혹은 무릅우에 안치는것이라든지 이러한 신체의 접촉이 넘우 도를 지나치게되면 커서 삽갈청이 부족하고 란잡한 사람이 되기 쉽다고 심리학자사이에 문제가 되어잇습니다.

말하면 어릴때 따로 재우지 안코 어머니가 한자리에 더리고 자는 아이던이 가장 어른과의 접촉이 만흘것입니다 이때문에 정신적으로 라도 성적 방면에 조치못한

＝영향＝ 을씨치게됩니다 다네다섯살이 … 상인 아일수록 더욱 그페해가 큽니다 아이에게는 독립한사이의 생활이 잇슬것임으로 어른의 생활과 혼동을 하지 안케 되도록 여러가지점에 주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학교 五六년까지된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 무릅우에 안저서 과자를 먹거나 응석을 하는 아이가 잇습니다 이런아이가 성적방면으로 조숙이 되고 마는것입니다 딸하서 부모에게 一중의 연모의 감정을 이르키는 례가 만케됩니다 결혼한딸이 흔하다

＝친가＝ 로도망해오는것 가튼일도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또 아들이 어머니에게 갓는 감정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긔분이 시어머니와며느리 또는 사위와 장인 사이에 불화를 이르키게 되는 큰원인이 됩니다 그럼으로 어버이와 자녀와는 넘우

＝접근＝ 해지낼것이아닙니다 다어느정도써지 떨어저 지내야 할 필요가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부모자녀사이에 접촉을 적게해야 사위혹은 며느리와도 다정할수 잇서서 가족적 감정을 완화시킬수잇다고 인정할수 잇습니다 가장 어버이와 신체접촉이 만케되기 쉬운것은 아모리해도 외롤로 자라보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외아들 외딸에게 조숙하는 아이가 만코 불량한 아이가 만타고 생각하겟습니다

「로이드의活動狂」

오늘부터團成社에서

사진은 구정월 초하로날부터 단성사(團成社)에서 봉절이될 파나마운트사 특작품 권 밧청영화 『로이드의활동광』(活動狂)의 한장면입니다

新刊紹介

▲東光 一二月合併號 滿洲問題를사고도는 日米의 外交戰, 最近의한글運動, 現代米國新聞縱橫觀, 學生에게보내는 公開狀, 朝鮮의유모리스트들『오싱』과『한울』의最後, 古朝鮮의 國風化郞道란무엇인가, 新聞記者時代의 各界人物印象記, 安島山의校長時代, 現代人名辭典, 三年度朝鮮文壇의展望, 푸로레타리아文化와世界文學動態, 이상한동무(小說), 잠자리(小說) 詩, 實話, 圓卓會議其他(定價三十錢 發行所京城鍾路二丁目九一東光社 振替京城四番)